

통일 칼럼

북한 포로 군인 문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며 감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각별히 예우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전쟁터에 있었지만 반역자로 몰린 이들도 있다.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해당된다. 북한은 포로가 되는 걸 반역으로 못 박고 있다. 최근 이 두 명이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들의 귀순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20세와 26세로 파악된 이들은 올 1월 3일 전장에 투입됐다. 다른 병사들이 숨지자 방공호에 몸을 숨겼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최근, 이들이 한국의 다류면허를 제작자를 만나 확고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금도 하루에 서너 차례씩 북한에서 하듯 자야비판과 상호비판을 벌이는 '생활총화'를 이어가며 김정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북한 군생활 중에 받은 '포로로 잡히면 반역이다'라는 세뇌 교육과 북한의 가족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란 설명이다.

전사자들 중 상당수의 희생이 전쟁 중 불가피했던 사망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폭이었다. 북한이 공개한 러시아 파병 영상에서도 자폭 장면이 영웅적 행위로 미화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자신들이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고국의 영웅이 됐을지 모른다는 말도 남겼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파병군을 깎듯이 예우하는 이유는 그들의 '희생'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교리로 작용하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다방면에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설령 휴전이나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으로 밀착된 북러 관계가 쉽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북러 양국은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쿠르스크 전선 북구를 위해 공병 1천 명과 건설 노동자 5천 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국방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군사·정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수용 중인 두 북한군 포로는 현재 한국 송환을 기다리며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탈북민들은 이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수용소에 전달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전하거나 편지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은 두 포로가 현재 국제법에 따라 적절히 대우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송환 문제는 최고위급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당국의 지원 아래,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영웅이 아니면 반역자로 규정된다.

포로 두 사람이 국내로 송환이 돼도 사실 평범한 자연인의 삶을 사는 게 좋다.

언론 등에 자주 부각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본인들의 정착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국내로 송환이 되어 조용한 자연인의 삶을 살았으면 긍정적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채드윅 보스만 사후 명예의 거리 헌액식 참석한 아내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고(故) 채드윅 보스만의 사후 명예의 거리 헌액식에 참석한 배우 레티티아 라이트(왼쪽부터) 보스만의 아내 테일러 시몬 보스만, 마이클 B. 조던이 그의 별 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스 유니버스’ 왕관 쓰며 울먹이는 미스 멕시코



미스 멕시코 파티마 보슈(Fatima Bosch)가 지난 21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 북쪽 눈티부리에서 열린 제74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스 유니버스에 선정된 후 왕관을 쓰며 기쁨에 울먹이고 있다.

사설

코스피 주간 7.2조 순매도

최근 코스피가 급락한 가운데 이번 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대 금액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 2,6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일별로 보면 외국인은 3일 이후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냈다.

3일 7,950억 원 수준이던 순매도액은 4일과 5일에는 각각 2조 원대로 급증했다.

6일과 7일에는 각각 1조 7,000억 원, 4,550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4일 순매도액은 2조 2,280억 원으로 일별 기준 2021년 8월 13일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원인은 그간 코스피

오름폭이 컸던 데 따른 고점 부담이 누적된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미국 기술주 급락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이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대형 반도체주에 대거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로 3조 7,15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도 1조 5,030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휘청이면서 이달 들어 코스피는 3.7% 하락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2.8% 넘게 급락해 '검은 수요일'을 겪으며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도액의 72%가 이들 두 종목에 쏟아졌다.

불평등 완화 대책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경제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평등 완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개천에서 용이 나와 한다"라며 "깊이 유념해서 관련 정부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답했다. 불평등은 크게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소득계층 이동은 상승이 17.3%로 하락(16.8%)보다 많았다. 둘을 합친 소득이동성은 약 34.1%다. 국제 비교 기준은 없지만, 소득 이동성이 40~50%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의 30%대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범위로 볼 수 있다. 특

히 청년층의 경우 상승이동 23.0%로 하향이동(17.4%)을 앞섰다. 2023년 청년층의 1분위 탈출률은 38.4%였다.

아직까진 그래도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닌 셈이다. 월 200만원을 벌는 청년층이 열심히 일하면, 월 300만원 이상을 벌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자산불평등이다.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져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심해졌다.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나, 자산·교육·건강 등 3개 분야의 불평등은 모두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문제는 '자산격차 해소'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가격을 누르는 방식이 중심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